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공현 대축일
제31권 6호(가해) 2011.1.2

[묵상]



동방박사들의 경배

<12세기, 프레스코 벽화, 카파도니아 동굴성당, 터키>

인간이 되신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출현의 공적 선포(公顯)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은
목동들의 최초의 인사에서 시작하여
별의 인도를 받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찾아옴으로 완성된다.
이스라엘 목동들에 이어
이방인들의 방문으로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공현 되신다.

예수님게로 인도해준 천사와 별
나의 천사와 별은 어디에 있나
수많은 천사와 별들을 만나고도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닐까
이젠, 내가 천사가 되고 별이 되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함도...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구세주께 합당히 드려야 할 선물을
나의 것으로 가로챘을지도 모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선물
이젠, 예수님께 필요 없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대신
나 자신을 봉헌함도... - 框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허정자 레지나 & 허동수 루스, 신우철
특전미사	(생)김현숙 가정,이호순, 서브르노 & 이사벨라 가정, 홍석인, 유은영, 이승찬, 나영찬, 김낙기, 나윤아
주 일 낮 미사	(연)김양금 안나의 조상님들, 최병기 요셉 & 정요임 안나,이성범, 고준희 제임스, 최복덕 마리아, 이현호 요한, 박영선 & 그부모님, 김봉선 마리아, 김순선 아네스, 김종환 야고보, 김형태 야고보, 김경숙, 엄은섭 도로테오, 김왕기, 서진경 안드레아, 서정록, 백덕돌 (생)김세중&김은영 가정, 김성중&김시연 가정, 김경중&박리디아가정, 박재익&박마리아가정, 정정진, 진영선, 김현정,토렌스 서3반 가정, 이연행, 백삼위전신자들, 김명숙, 이정숙, 이무열, 이동식, 이호순, 이덕철, 이문오&박의자, 고천용&고규재 가정, 강순복 가정, 이제정&이인숙&이준&이진, 박인식&박기원 가정, 하늘의문pr. 허버/카슨 가정, 김정웅&막달레나의 대자녀들, 유영균&유명련 가정, 황윤제, 정열모&미영 가정, 이태호, 정치영&정종미 가정, 정학순, 권오상&권순길 가정, 토렌스북구역가정, 나경흠&다카하시, 정동호&정병욱 가정, 조영우 &자선, 이태호&이영호 가정, 김동길&김재희, 김에드워드 가정, 이영석&박은혜, 강상훈&양희수, 김용&박문주 가정, 김병학&김소희 가정, 이문중&김난숙 가정, 최상만&최양숙 가정, 문발티스타 수녀, 이장환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60,1-6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 소 서.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의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3,2,3-4,5-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2	102
봉헌	이 아기 누구일까	148
성체	283	305,295
파견	동방의 세박사	146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국법과 도덕률

심지어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까지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오직 그 사람 본인만이 자기 선택의 윤리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공존과 사회의 조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선택을 존중해야만 할 것이며,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하는 선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로, 국법은 모든 시민들 자신이 인정하고 공유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살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법은 언제나 시민 다수의 견해와 의지를 반영해야 하며, 적어도 어떤 극단적인 경우들에는, 시민들에게 낙태와 안락사의 권리까지도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럴 경우에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금지와 처벌은 앞에서 말했듯이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행위들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사회에 의한 필요한 통제에 따르지 않게 될 것이며, 의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로 강제력이 없는 법을 지지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법의 권위를 붕괴시키게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끝으로, 더욱더 극단적인 견해는 현대사회와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아울러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윤리적 견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법의 의무가 아니며, 하나의 구체적인 견해를 부과하기 위해서 다른 견해들을 무시할 권리는 더 더욱 없다고 주장한다.

69). 어쨌든, 우리 시대의 민주적인 문화 안에서 어느 사회의 법제도이든 과반수의 확신을 고려하고 받아들이는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더구나 만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민주제도 안에서 진정한 통치자로 여겨지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입법적인 차원에서 개인 양심의 자율성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규범을 세우게 될 때 유일한 결정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과반수의 의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활동에서 개인적인 양심의 영역을 공적인 행동의 영역과 분리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으로, 개인들은 도덕의 영역에서 가장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요구하며, 국가는 어떠한 윤리적 입장도 채택하거나 부과하지 말고, 다른 어떤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개인에게 최대한 자유로운 공간을 보장해 주는 한계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속)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정성이 담긴 선물은 자신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됩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선물을 받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처지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렇듯이 선물은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공현 대축일입니다. 공현(公顯)이란 “공식적으로 나타내 보이다”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드러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선물로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생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황금은 왕을, 즉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고, 유향은 기도와 흠숭의 상징으로 향기로움을 한 분이신 하느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죽음과 장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땅에 묻히심을 뜻합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탄생하신 예수님께 드릴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봅시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나이 어린 동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온갖 궂은 일을 다하며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녀는 신부님께 성사를 청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신부님! 저는 동생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그동안 주일을 지키지 못했고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

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성사를 집전하던 신부님의 눈길이 문득 소녀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 손은 도저히 어린 소녀의 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온갖 궂은 일로 인해 손마디는 울퉁불퉁 불거져 있었고 손 여기저기에 찢긴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선 소녀의 두 손을 감싸 쥐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애야, 하느님께서 너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시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이 두 손을 하느님 앞에 내어 보이거라, 이 아름다운 손만을...”

그렇습니다. 예화의 소녀는 예수님께 자신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자신의 삶의 무게와 고통, 희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간직된 손을 바쳤습니다. 그 손이 그 소녀에게 있어서 황금이요, 유향이며, 몰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노력과 정성일 것입니다. 나에게 삶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기꺼이 나누는 삶. 그리고 비록 삶에 지쳐 힘들더라도 힘든 그 삶의 노력을 바친다면 그것이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두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고준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엄영숙 마리아	신덕례 데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사도요한
제2독서자	유현자 안나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데레사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2011년 1월

주님 공현 대축일

오늘 주일(2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성대한 축일입니다.

- ◆ 성시간 : 1월6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하버/카슨 구역
- ◆ 병자 영성체 : 1월7일(금) 오전 10시부터

◆ 본당 설립 30주년 맞이 전 신자 친구약 통독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1년 동안 전 신자 친구약 통독을 실시합니다. 성서 읽기에 맞추어 알기 쉬운 해설을 주간별로 해드립니다. 성서 공부와 함께 성서 통독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경읽기표 : 지난 주일부터 주보에 삽지, 배부했습니다.
- 시작 : 2011년 1월6일(목)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 오후 8시, 강당
(같은 내용을 오전/오후 두번 공부합니다.)
- 지도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Theme) 선정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주제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제 공모에 참여해주신 많은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 대상 : 없음 ● 가작 : 임순 데레사

◆ 울프레아 새해 첫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2일) 낮미사후 강당(점심 제공)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백삼위 성모회 신년모임

- 일시 : 1월7일(금) 오후 6시30분 강당

- 참석자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문의 : 성모회장 최옥희 데레사 ☎(310)508-2912

◆ 전진성사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월6일(주일) 성인교우들을 대상으로 전진성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전진받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시오.

- 일시 : 2011년 2월6일(주일) 낮미사 중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LA대교구 San Pedro Region)
- 교육일정 : 추후발표
- 문의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베드로 ☎(310)694-4585

◆ 새해(2011년/신묘년/가해) 본당 달력 배부 중

- 누구나 가고싶은 성지(터키,그리스,요르단,포르투갈)를 주제로 한 2011년 본당 달력을 교우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례력, 독서, 복음, 축일, 절기 등을 담은 새해 달력은 신심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달력제작에 도움을 주신 광고협찬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경 읽기표' 봉헌 감사합니다.

손스 프린팅을 운영하시는 손희성 라우렌시오 형제님께서 본당 성경통독에 길잡이가 될 '성경읽기표'를 730매 봉헌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백삼위 한인성당' 공식 사진 웹사이트 개설

우리 본당 공식 사진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향후 성당에서 촬영하는 사진은 이 웹사이트에 별도 공지없이 등록됩니다. 인화를 할 수 있는 원본 그대로 게재되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인화하거나, 온라인에서 바로 인화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 <http://flicker.com/photos/103skcc>

● 새로 나온 예비자 환영합니다. ●

♡ 김석호 & 김진 부부
딸 미셀 김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2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떡 \$4.50)
- 1월9일(주일) : 토런스 남2반(콩나물 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오상	금영도	김광자	김병철	김성현	김영길	김 용	김재연
	김재연	김재영	김찬구	노세미	문두현	문향업	민기남	박동희
	박동희	박완철	박종열	박진선	변해경	서병교	서성용	변해경
	송준규	송호창	신대식	양영관	오명섭	오석만	오세원	송호창
	오수인	오영섭	오진희	유경자	윤희동	이경태	이근태	오석만
	이명렬	이민상	이병우	이상규	이석제	이석진	이숙화	오세원
	임한나	장영진	정명모	정정현	조준제	주태청	최미열	이명렬
	최희태	한금순	현석주	합계 : \$12,415				
미사헌금 : \$6,306(24~26일) 구유예물 : \$3,941(24~26일)								

성전헌금	권오상	금영도	김광자	김성현	김영길	김 용	김재연
	김찬구	노세미	문향업	민기남	박동희	박완철	박종열
	변해경	서병교	서성용	송호창	신대식	양영관	오명섭
	오석만	오세원	오수인	오영섭	오진희	유경자	이경태
	이근태	이명렬	이민상	이병우	이상규	이석제	이석진
	임한나	정정현	조준제	주태청	최미열	최희태	한금순
	달력광고협찬 : 주태청						합계 : \$6,765
	감사헌금 : 이덕철 루카 가족, 백연주, 강미순, 박효식, 윤희동						

공지사항

◆ '거룩한 집 성당' 깨끗이 사용합시다.

- 새해를 맞아 성당 1,2층 카펫 전체를 물청소 했습니다.
특히 각 교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전기, 에어컨, 히터 사용 후 반드시 끄시다.
- 화장실 사용후 뒷자리를 꼭 돌아봅시다.

◆ 오늘 주일(2일) 주일학교/한국학교 휴강

◆ 배론 청년회 회원 모집

"평범한 신앙생활은 거부하고 있는~데~"

- 청년이세요?
- 혼자 미사드리기 심심하세요?
- 토요일 밤을 뜻깊게 보내고 싶으세요?
- 주님과 함께하는 백삼위 청년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 * 모임일시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성당 강당
- * 문의 : 이상용 엘리아 청년회장 ☎(310)650-6057

◆전신자 친구약 통독 주간 암송 성구◆

- 1월 1일(토) 루카복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1,38)
- 1월 2일(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5,10)
- 1월 3일(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9,62)
- 1월 4일(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11,9)
- 1월 5일(수)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15,7)
- 1월 6일(목)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16,13)
- 1월 7일(금)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19,5)
- 1월 8일(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24,32)
- 1월 9일(일) 마태오 복음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1,23).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유현자 안나 1/7(금) 오후 7시 483-5476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1/8(토) 오후 7시 530-7702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1/4(금) 오후 8시 성당 854-9407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박동수 베드로 1/15(토) 오후 7시 218-7340
	2	이크리스 야가토 619-7763	윤마오로 316-7819 1/8(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김미성 에스텔 720-2876 1/10(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이인석 비오 433-9075 1/21(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이재용 안드레아 750-4051 1/8(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새라파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15(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카다 866-8778	1	남경희 메데다 384-3289	이영무 스테파노 377-9989 1/14(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도영 베드로 541-4706 1/7(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한애경 율리아나 541-5370 1/14(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영숙 수산나 544-5078 1/11(화) 오전 10시30분

제44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요약)

종교 자유, 평화의 길

새해의 시작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안정과 번영, 특히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프게도 지난 한해는 박해와 차별, 그리고 폭력과 종교적 불용의 잔혹한 행위들로 얼룩졌습니다.

저는 특히 소중한 나라인 이라크를 생각합니다. 이라크는 안정과 화해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폭력과 갈등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통들과 특히 2010년 10월 31일 시리아 예법 천주교회인 바그다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주교좌 성당에 가해진 잔인무도한 공격으로 당시 미사 거행을 위하여 모인 사제 2명과 신자 50여 명이 사망한 참사가 생각납니다.

저는 저와 온 교회가 언제나 그들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최근 중동 주교대의원회의 특별 총회가 이라크와 중동 전역의 가톨릭 공동체들이 일치하여 살며 그들의 땅에서 계속 용기 있게 신앙을 증언하도록 격려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인류 가족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인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폭력과 불용의 희생자인 신앙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도록 당부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평화의 길인 종교 자유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는 것이 특별히 적절하다고 여깁니다.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목숨을 내걸지 않는 한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인들과 종교적 상징들에 대한, 더욱 드러나지 않고 교묘한 형태의 편견과 적의가 보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가장 심하게 박해 받고 있는 종교 집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종교 자유를 간절히 호소한다는 이유로 날마다 상처 받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느님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안전과 평화에 대한 위협이고 참되고 온전한 인간 발전을 성취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종교 자유는 인간만이 지닌 고유성을 표현합니다. 종교 자유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이 하느님을 지향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는 하느님의 빛으로 인간의 신원과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부인하거나 독단적으로 규제하면 왜곡된 인간관

을 조장하게 됩니다. 종교의 공적 역할을 없애 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의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가족 전체 안에서 지속적인 참 평화가 자라나지 못하게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모든 이가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고백하는 세상,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마태 22,37 참조) 그러한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 선의의 모든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세상은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는 보편적이고 공통된 윤리적 정신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질서의 건설에 종교가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는 과제입니다. 하느님과 화해를 이룬 사회는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군사적 경제적 패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만적 계략이나 간교한 조작의 결과는 더욱 아닙니다. 그보다 평화는 모든 개인과 민족들이 참여하는 정화의 과정과 문화적 도덕적 정신적 고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 존엄이 온전하게 보장됩니다. 저는 모든 평화의 일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무한한 힘을 얻는 든든한 준거를 찾기 바랍니다. 이 준거는 세상에 새로운 방향과 정신을 불어넣고 과거의 잘못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선견지명으로 세계 평화의 날을 제정하신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무기 - 인류를 죽이고 전멸시키는 것과는 다른 무기로 평화를 이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무기입니다. 이는 국제법에 힘과 권위를 주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우선 조약의 준수입니다.” 종교 자유는 평화의 참된 무기로서 역사적 예언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는 인간의 가장 심오한 역량과 잠재력이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역량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교 자유는 심각한 불의와 물질적 도덕적 빈곤에 직면해서도 정의와 평화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지상의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 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회가 하루빨리 평화의 길인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2011년 평화의 날에 교황 베네딕토 16세